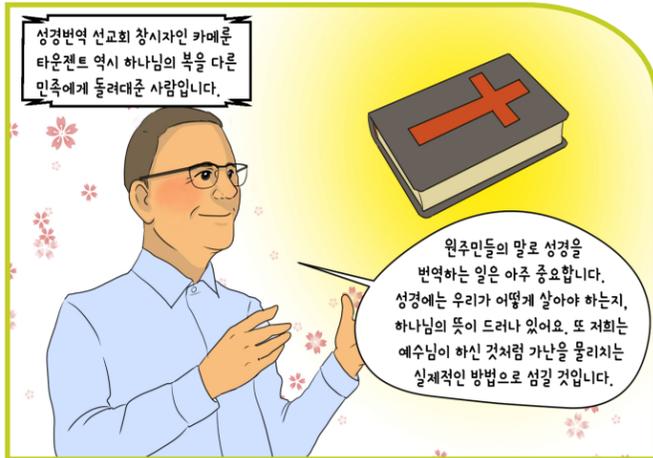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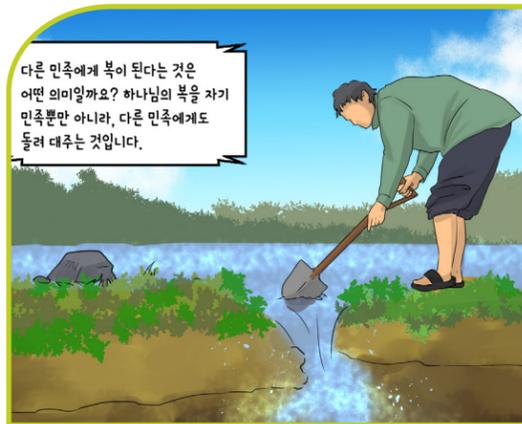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말씀



성경을 함께 읽어요



에스겔 37:1-14
39:1-6
47:1-14

생각해요

하나님,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타운젠트 선교사님처럼 예수님같이 잘 섬겨서, 더 많은 민족들에게 말씀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물이 흐르는 길을 물길이라고 해요. 물이 없어 바짝마른 땅이라고 해도 거기서 물길을 돌려주어 물을 흐르게 하면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변한답니다. 자기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민족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는 일은 마치 물길을 돌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곡식을 자라게 하는 물과 같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니까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설립한 타운젠트 선교사님이 어느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을 물리치려는 대통령을 도와 멕시코 원주민들을 섬길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원리와 가르침들을 원주민들의 말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르데나스 멕시코 대통령은 성경을 읽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또한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을 갖게 된 페델칭고 도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 도시의 시장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정말 이상한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도 할 수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구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페델칭고는 무지에서 배움의 장소로, 사막같은 곳에서 꽃이 활짝 핀 농장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넘쳐나던 도시에서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가 되어갔답니다.

가르데나스 대통령은,

“이 미국인 부부처럼 원주민 마을에 살면서 사랑으로 마을을 개발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선교사님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타운젠트 선교사님은 심지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가 맺어지도록 외교관 역할까지도 했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이라는 책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유명한 환상이 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의 이름은 “생명수가 흘러 나오는 우주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너무 비슷하지요?”

어린이 여러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말로 된 성경 말씀을 갖게 된 후에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된 페델칭고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멕시코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멕시코라는 나라의 이름 뜻대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흘러 내보내,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당 1센트 혹은 장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Copyright © 2012 by Wycliffe Canada.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 동의/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